

‘화순 와락 페스티벌’ 내달 2~3일 개최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만드는 감성 문화축제

화순군은 오는 5월 2~3일까지 이틀간 화순읍 중앙로 광덕문화광장 일대에서 ‘2025 화순 와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화순중앙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하고, 화순군·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화순 와락 페스티벌은 지역 상권 촉제로 설계된 상점가의 자생력을 갖추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축제이다.

축제는 양일간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현장 데스크를 운영하며,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은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 공로자에 대한 공로·감사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버스킹 공연 ▲블립종선공작소 ▲감성주점 ▲기정떡 팝업스토어 ▲포도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영광,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실시

체험·공연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감기회 마련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와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17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은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 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과 공감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인형극 ▲강연 ▲휠체어댄스

포츠 공연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접근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형극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이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다루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강연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일상과 사회적 인식의 벽, ‘역지사지’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휠체어댄스스포츠 공연으로 교육을 마쳤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성 “월드비전,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후원”

10명에 총 2000만 원 전달

장성군이 최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필 케어(Fill Care)’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필 케어’는 △생계(생활비, 주거비) △돌봄(의료비, 간병비) △미래(교육비, 심리상담 등)분야 가운데 필요한 영역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34세 이하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청소년 10명에게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된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12월에도 장



성군과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6명의 학생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789개 기관과 협업해 2515명을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장성=심재식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AI기술로 어르신들 청춘 되살린다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젝트 ‘담양애(愛)청춘’ 추진

젊은 시절 모습 복원·회고록 제작 등 예술로 승화

(재)담양군문화재단은 노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담양애(愛)청춘’을 오는 5월부터 담양군 가사문화면 일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사문화면 65세 이상 어르신 약 5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청춘 시절을 복원하고, 그 기억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난 시범운영 과정에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담양애(愛)청춘’은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시니어 회고 프로젝트로,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심에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AI 청춘복원 사진은 어르신의 현재 얼굴을 기반으로 AI분석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복원해 주는 서비스로, 감동적인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복원된 사진은 액자 제작은 물론, 마

을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AI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하여 어르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도 자신의 삶을 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예술적 감성으로 언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나

의 인생 명언’이나 회고록 형식의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후손들과 세대 간 공감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어르신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삶의 이야기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울림을 주며 사라져 가는 기억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지 모델로 AI 기술을 통해 과거의 청춘을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사문화면을 시작으로 이후 담양 읍·면으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함평,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 2년 연속 선정

CCTV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비 2억원 확보

함평군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함평군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에 지난 25일 함평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과 함평경찰서는 자치경찰 협의회에서 범죄위험도 1~2등급 관리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내 안전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국가산단 조성과 외국인 우호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인근에 CCTV 및 비상벨 등 방범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함평을 건설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흥, 바이오 식품기업 투자유치 총력전 나서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 참가… 지원제도 등 중점 홍보

장흥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에 참가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 기간 장흥군은 지역의 바이오 식품산업 경쟁력을 적극 알리는 등 바이오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산업전에서 장흥군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홍보 부스에 참여해,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바이오 식품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는 입지·세제 혜택 등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장흥군은 ‘바이오식품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바이오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은 바이오 식품기업이 성장하기에 연구기반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이번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식품 기업과의 협력 접점을 확대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화순, 내달 16일까지 모집

화순군은 전남도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오는 5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속에서 자립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공모는 도 내에서 4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5월 말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이 입문 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제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도 제공된다.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